

U-러닝 미래형 LCD 전자칠판

www.tyunc.com 031_484_3858

교육연합신문

EY MALL

교육연합신문이 운영하는 통합쇼핑몰

클릭으로 만나는 온라인 최저가쇼핑몰

http://eymall.kr

2016년 10월 26일(수) 제 268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내: 02-541-2000



연재-신약초에 빠지다

산에서 자라나는 식물에는 건강이 함께 하고 있다. 전라남도 생약농업협동조합 김형중 조합장이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준비한 신약초의 이야기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9면



합양미천중, 학부모와 함께하는 지리산 들레길 걷기 14면

경남 합양 미천중학교(교장 이종만)는 10월 21일 가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지리산 들레길 5코스 걷기를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교사·학부모가 아름다운 지리산 들레길을 걸으며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기르며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탐방하는...



전남도교육청 자유학기제

2016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됐다. 전남에서는 250개 중학교 중에서 청산중학교를 제외한 249개 학교가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작했다. 청산중은 2학년 1학기에 운영한다.

16면

“기간제 교사 절반가량 담임 맡아”

안민석 의원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 옥죄니 기간제 교사 개선 안 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재우가 열악해 점차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이 미비해 교육 당국이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 (42,916명), 2015년 11.5% (44,018명), 2016년 11.4% (43,472명)로 개선되지 않고 줄곧 제

자리점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교육청은 인천, 경기, 충북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 (42,916명), 2015년 11.5% (44,018명), 2016년 11.4% (43,472명)로 개선되지 않고 줄곧 제

며,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9.6%), 경북(55.9%), 대전(54.0%)의 순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 교사가 담임이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 당국도 교육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교육부도 지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아 유치 등에 따른 교사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 교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을 옥죄니 기간제 교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기자 ae@



추수의 기쁨을 나누다

광주동초 충효분교, 2016년 벼 베기 교육활동

광주동초등학교충효분교(교장 심상화)가 19일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 주민, 시교육청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효분교 학교 논에서 '벼 베기 교육활동'을 실시했다. 충효분교 학생들은 '2016학년도 지난 6월 직접 손내기 교육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그때 심은 벼가 자라 이날 수확으로 이어졌다. 시교육청

장회국 교육감도 학생들과 함께 벼를 베고 탈곡까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벼를 쳐서 만든 인형미를 곁들이며 농부들의 값진 땅과 노력을 느껴보고 수확의 기쁨도 함께 누렸다. 이번 교육 활동의 슬로건은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마을이 함께 하자'이다.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 하나로 모내기부터 벼 베기까지 학부모들과 평촌 명품 마을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심상화 교장은 “충효분교의 벼농사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벼농사를 체험해 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인문학적 감수성도 함께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교육활동이다”며 “자연 속에서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충효분교만의 독특한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교사는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뜻깊은 교육활동의 장이 되었다”며 “특히 학생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기가 됐다”고 밝혔다. 조민철 기자 jim@

다음달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개최

24일부터 사전 접수...35개 스타트업 채용상담 및 면접 진행

유망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내달 15일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내달 15일 서울 역삼동 팀스타운 지하 1층 팀스타운에서 청년 취업난과 스타트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스타트업으로 Start Job'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쿠팡·우아한형제들·직방·플리토·메쉬코리아·메이플랩스 등 유망 스타트업 35개사가 참여해 채용상담회와 면접을 진행한다. 유망 스타트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참가할 수 있다. 1부 개막 행사에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의 특강과 함께 스타트업 취업 근무 사례에 관한 공모전 시상식·우수 사례 발표 등이 이

어진다. 2부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리크루팅이 3시간가량 진행되며 35개 업체당 1분씩 소개 시간이 마련됐다. 청년취업재단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 구직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도 “청년외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제작자의 근무만족도가 대기업·공공기관보다 2배 정도 높음만큼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들이 역량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페스티벌 홈페이지(www.startup.kban.or.kr)를 통해 참여기업의 채용정보, 자격요건 등을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4일부터 사전 접수를 통해 면접 신청이 가능하다.

교부가 엔지니어링 산업 본격 육성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고급 인력 양성·제도 개선

정부가 교부가 분야로 평가받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과 중점으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엔지니어링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유발 효과가 컸지만 제조업이나 건설·플랜트 산업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고 기본 설계 등 교부가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했다.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8.3%에 달하지만 엔지니어링 분야 점유율은 2.4%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미흡한 것에 대해 정부는 실무형 인재양성 교육과 우수 인력(트랙레드) 부족, 제조업보다 부족한 정부 지원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정부는 교부까지 지역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력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실무 훈련과 트랙레드 등 구축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3D기반의 가상훈련과 교육플랫폼 운영을 늘리기부터 연 200명에게 교육한 뒤 LNG 역화 가스공사를 활용한 실습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오는 2018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대학과 기업의 교육프로그램 협력도 확대한다. 미국 페트로스킬스, 프랑스 IFP 등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민간기관의 교육시스템도 국내에 도입하고 단기기간에 역량 강화를 위해 '몬테트 코리아'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장년층 직업훈련 늘리고 경력설계 돕는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생애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40대, 50대, 퇴직전후 1회) 경력 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 1만명

이던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내년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조조정 확산과 빨간길 고령화로 늘어나는 장년층의 구직 수요에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충 ▲장년 특화 직업훈련 확대 ▲재취업 지원 강화 ▲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제작자에 한정되었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Y MALL

교육연합신문이 운영하는 통합쇼핑몰

클릭으로 만나는 온라인 최저가쇼핑몰

http://eymall.kr

교육연합몰 수취금 중 일부와 회원님이 기부한 적립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돕기 위해 쓰여집니다